

구 가이요테이 요정

가이요테이 요정은 약 130년 동안 부유한 상인과 정치인, 유명인을 대접해 왔습니다. 1885년에서 1890년 사이에 사카이마치 거리와 가까운 현재의 장소에 창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요정은 다이쇼 시대(1912년~1926년)에 증축되었으며, 현재의 건물은 서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3채의 건물이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중앙 건물에 있는 연회장은 이 건물의 가장 오래된 부분으로 1894년 화재 이후 재건된 것으로 보입니다.

가이요테이 요정은 오타루가 상업항으로서 누렸던 영고성쇠의 역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. 창업 초기의 단골손님은 새로이 부유층이 된 해운상들과 청어잡이로 재산을 모은 어부들이었습니다. 현재도 남아 있는 특징으로 수입 유리로 된 창문과 가스등 샹들리에, 야자수를 사용한 장식 기둥 등이 있어 20세기 초 오타루의 번영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. 대연회장 중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진주군의 사교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축되었습니다. 2015년까지 요정으로 영업했습니다. 가이요테이 요정은 현재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.